

멘토를 활용한 지역 거점형 창작 글쓰기 교육 방안

— 체험형 글쓰기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

장 창 영 (전북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체험형 글쓰기 프로그램의 실제 |
| 2. 체험형 글쓰기에서 멘토와 멘티의 역할 | 4. 멘토 활용 글쓰기의 사회적 의의와 기대 효과 |

국문초록

멘토 기반 교수 학습 프로그램은 지역 멘토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찾아 잠재력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안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거주자로 활동하는 멘토와 관심과 열정을 가진 청소년 멘티와의 멘토링 관계 형성과 함께 학교 글쓰기의 새로운 문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험적 방법은 기존의 학교 글쓰기 방식의 확대와 현장 적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멘토링은 멘토가 지역 사회에 재능을 환원하는 의미와 함께 멘티가 외부의 전문가와 의사 소통함으로써 글쓰기 기술 향상과 시야 확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멘토를 중심으로 하는 현장 체험형 글쓰기는 학교 현장의 사각 지대에 있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42156).

는 청소년에게 삶의 동기부여와 함께 외부와의 의사 소통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학습자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가 역시 지역 청소년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문화 활성화와 문화 예술의 확대라는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

주제어: 지역 전문 작가, 멘토, 멘티, 멘토링 프로그램, 창조적 글쓰기, 체험형 글쓰기 프로그램

1. 서론

이 연구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를 멘토(mentor)로 이용하여 고등학생들의 전통적인 방식의 글쓰기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고, 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글쓰기의 문제를 개인 역량이나 열정과 노력의 산물로 국한시켜온 경향이 강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글쓰기를 글쓰는 이의 천부적인 뛰어난 능력의 소산이거나 고행에 가까운 개인 노력의 결과물과 동일시하기도 했다.²⁾ 그 결과 글쓰기에 관심을 갖고 있던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 혼자 습작하는 과정에서 좌절하여 포기하거나 노력하여 극복함으로써 성공하는 극단의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일부는 스승 밑에서 도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도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식의 글쓰기

1) 이 글에서는 글쓰기의 범주를 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학 형태의 글쓰기를 확장한 개념으로 다루고자 하며,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 논술이나 소논문 등을 포함한 학문적 글쓰기와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조정래 소설가가 자신의 창작 생활을 ‘글감옥’으로 표현한 것은 창작이 자기와의 싸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창작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이 고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에서는 글쓰기를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이나 관심영역으로 국한시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글쓰기에 대한 사회적인 특수성 때문에 일반인이나 청소년에게 글쓰기는 ‘경외’의 대상이거나 폐쇄적인 ‘배제’의 영역에 머물러 온 경향이 강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창작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다행히도 미디어 확산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학생들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대 환경을 반영한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³⁾

최근 쓰기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실태 조사부터 자서전 쓰거나 시 창작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책쓰기’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자기주도적 탐구학습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분석한 김종성⁴⁾, 초·중·고등학생들의 쓰기수업 인식과 실태에 초점을 맞춘 장은섭⁵⁾, 미래 자서전 쓰기를 통해 청소년 자서전 창작 지도 방안을 분석한 최선녀⁶⁾, 청소년 필자의 학문적 쓰기 발달에 필요한 교사의 쓰기 방법에 주목한 오세영⁷⁾, 시 쓰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자기 표현 방법의 가능성을 모색한 문신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3) 오영훈은 창의·인성적 자서전 글쓰기 유형을 ① 감정카드 작성 ②자아와 인간관계 확장: 가족소개하기, 감사편지 또는 우정의 편지 쓰기, 여행체험담 ③ 자신이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유도하는 개인적인 서술 ④ 실용적 과정으로서 자기소개서 쓰기 ⑤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창의적 자서전 쓰기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오영훈,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글쓰기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2권 제5호, 2016.

4) 김종성, 「자기주도적 탐구학습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0.

5) 장은섭, 「국어 교사의 쓰기경험과 쓰기수업 및 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 『대학작문』 7집, 대학작문학회, 2013.

6) 최선녀, 「청소년 자서전 창작 지도 방안 및 사례 분석」, 『한민족어문학』 제68집, 한민족어문학회, 2014.

7) 오세영, 「청소년 필자의 학문적 쓰기 발달에 필요한 바람직한 국어교사의 쓰기 지도 방법 연구」, 『새국어교육』 제101호, 2014.

글쓰기의 확장 모색이자 새로운 방법론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창작 동기 부여의 계기를 제공하는 한편 실제 창작 결과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글쓰기와 관련한 논의가 ‘교사’와 ‘교실’이라는 폐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 글쓰기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에서 작가로 활동하는 멘토를 중심으로 지역 청소년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멘토와의 교감을 바탕으로 창작 글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기의 학생이 혼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접하기 쉬운 전문성 결여와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멘토를 중심으로 글쓰기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글쓰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멘토와의 교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고,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토의 입장에서는 창작의 활력을 얻고 지역 사회에 자신의 재능을 환원이라는 의미와 함께 멘티 역시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시야 확장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

2. 체험형 글쓰기에서 멘토와 멘티의 역할

그동안 한국 교육계의 관심은 대학 입시 합격률이나 양적 팽창과 같은 외형적인 성장이나 취업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해 온 경향이 없지 않다. 학교들이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명문대 진학, 건물 증축, 학교의 위상 제고와 같은 외적인 성과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학생들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받

8) 문신, 「청소년들의 자기표현 방법 교육 연구 -시 쓰기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61집, 국어문학회, 2016.

회할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신나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거의 매일 하는 활동’에 대한 응답에서 핸드폰 사용(80.4%)이 가장 높았으며, TV 보기(55.4%), 인터넷 사용(52.7%), mp3 플레이어 듣기(47.3%), 컴퓨터나 비디오게임하기(19.8%), 라디오 듣기(6.1%), 비디오/DVD보기(4.7%)가 그 뒤를 이었다.⁹⁾ 이와 같은 통계수치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의 미디어 몰입상태를 보여주며, 일상에서 독서와 쓰기 활동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쟁논리 위주의 교육과정은 대학입시에 유리한 성적 우수학생 위주로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작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은 그만큼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여건상 현재처럼 평가 위주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실제 창작 과정으로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좌절이나 절망감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본격적으로 과정 중심적 관점의 쓰기 교육이 시행된 6차와 7차 교육과정에서도 쓰기의 교육목표와 달리 학생이 체감하는 상실감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은 쓰기수업이 요구하는 보편적인 기대와는 달리 학교에서의 쓰기교육이 해당 정보를 단순히 글로 옮겨 적거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연습 및 훈련에 그치고¹⁰⁾ 있는 상황을 외면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군을 멘토군으로 설정하여, 창작 글쓰기의 대중화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사들이 평소 학교에서 담당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한다면 체험형 프로그램과 같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의 방식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군을 글쓰기의 멘토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9) 신나민, 안화실, 「읽기, 쓰기, 향유 체험을 중심으로 본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8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3, p.3780.

10) 장은섭, 앞의 논문, p.177.

교사교육 분야에서는 멘토의 조건을 3~5년 이상의 교사경력이 있으면서 실습교사나 초임교사를 지도해 본 경험이 있고 모범적인 역할수행이 입증된 교사로 제안하고 있다.¹¹⁾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동일 기관이나 관내 교사 중에서 교단 경험이 풍부한 경력교사로 하되 으뜸교사나 지역장학요원, 수업연구대회 입상 교사 등을 멘토로 선정하고 있다.¹²⁾ 여기서 유의할 점은 경력이 많거나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교사라고 해서 모두 좋은 멘토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멘토는 프로그램의 성패만이 아니라 참여 학생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선정 과정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¹³⁾

멘토의 선정 요건으로는 전문가로서의 글쓰는 능력 외에도 공감능력(인지공감, 정서공감)과 소통능력이 필요하다. 멘토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정 기간 작품 활동을 통하여 최소한의 필력을 대내외적으로 검증 받은 사람을 선발한다. 멘토의 선정 기준으로 5년 이상의 문단경력을 가진 이로 한정하는 이유는 지도 과정에서 숙련성을 갖춘 실력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프로그램에 진행에 보다 효율적이며, 멘티와의 체험활동과 책 작업 과정에서 예기치 않던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답사나 현장 체험 등에서 발생할 있는 돌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지닌 멘토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멘토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로 선정할 이유는 멘티와 동일 지역에 대

11) 박은혜 외, 「초임교사를 위한 입문교육 프로그램 모형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교사교육』 15집, 1998. 조혜진 외, 「멘토의 자격요건 및 멘토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원과 장학사의 인식 및 요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집,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1, p.90. 개인용.

12) 신봉섭, 「신규교사 멘토링제의 운영 실제와 개선 방안」, 『한국교원교육연구』 23집, 2006.

13) Rosdnberg에 의하면 의미 있는 타인으로 영향을 받아 긍정적으로 자아를 형성해나가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표현을 잘하고 자기 확신, 인내, 잠재적인 지도력, 사회적인 기술 등의 특징을 지닌다 (오미선 외, 「멘토의 공감능력이 멘토링관계와 멘티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9권 7호, 2012, p.125.).

한 교감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지도를 병행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다른 지방의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다는 장점과 함께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만약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작가가 해당 지역에서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지역의 인재 발굴과 함께 지역문화 역량의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열정과 성의를 다해 지도할 수 있는 인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멘티의 고민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자아 존중감의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업 차원에서 학생을 지도하거나 인성이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멘토를 만날 경우, 자아 형성기의 학생들이 아예 글쓰기 활동 자체를 중단하거나 소통 단절과 같은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 자원을 활용하여 교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글쓰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졸업 이후 연계가 쉽지 않은 학교 교사와 달리 멘토는 지속적으로 멘티에게 인생의 조언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멘토는 학생에게 글쓰는 기교만을 전수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멘토와 멘티의 작업은 1회성이 아니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교류하면서 동반 성장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멘토는 멘티에게 자신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지만 멘티로부터 배움의 의미도 깨닫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멘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재능을 후학들에게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나눔과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멘티의 선정 기준으로는 뛰어난 언어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외부로 적극적으로 발산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며, 평소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독창성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관심 분야에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지적 호기심을 기반으로 제도권의 영향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발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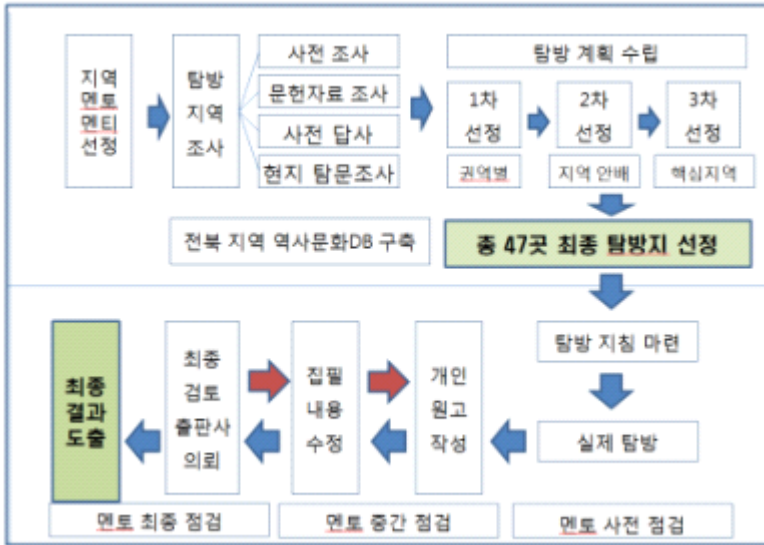
3. 현장 체험형 글쓰기 프로그램의 실제

멘토를 활용한 체험형 글쓰기 프로그램은 전북 도교육청의 주민참여제안 사업의 지원을 받아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4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최종 결과물은 북랩 출판사에서 『전북 역사문화 탐방기』(2018)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전북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이루어진 역사문화 탐방은 전북지역의 10개 시군에 위치한 47곳의 역사 문화 유적지의 탐방, 체험 활동 6회, 작가와의 대담 3회 등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연구자가 진행한 프로그램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3회에 걸쳐 프로그램 소개를 포함한 학생들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고, 9월부터 토요일마다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총 10회에 걸쳐 탐방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3회의 사전 답사와 탐방에 앞서 전체 학생들의 동선을 점검하고 체험 프로그램의 발굴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해설사 등을 섭외하였다.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는 학생 모집부터 관리, 기획서 제출 및 최종 결과 보고 등 부가적인 행정 업무가 뒤따르게 된다.

멘토로서 프로젝트 전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연구자는 지역일간지와 중앙일간지 신춘문에 당선 이후 10년 이상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로서 개인 시집과 문학기행서, 문학이론서를 출간한 바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견의 지역문인이다. 멘토를 선정하는 과정은 전북 전주시의 신흥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 2학년 학생 중 15명 내외의 지원자를 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이후 참가자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멘토와 멘티의 최종 확정이 이루어진 후, 전체 프로그램은 5단계에 걸쳐 실시하였다.

1단계는 실제 탐방에 앞서 사전 준비단계에 해당한다. 이때 멘토와 멘티들은 1, 2, 3차에 걸쳐 역사문화 탐방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단계는 탐방 코스의 조정 및 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해 총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체험형 글쓰기 프로그램 운용도>

탐방을 진행할 장소는 전북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문학과 관련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 후보지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최종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와 연계하는 한편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문학, 그리고 지역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지역 문인과의 대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 역시 창작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생생한 목소리와 작품세계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다. 특히, 체험형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참가시킴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휘의 다양성과 의미를 풍부히 구사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언어 사용에 대한 이질감과 거부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널리 알려진 시나 가사를 패러디하거나 일상생활

을 스토리텔링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휘들의 의미 차이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멘토는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어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어휘의 변주를 훈련하면서 어휘가 지닌 풍부한 의미와 가능성을 멘티 스스로 체득하게 하였다.



2단계에서 멘티들은 실제 탐방을 진행하기에 앞서 독서와 쓰기를 병행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멘토는 사전 탐방에 앞서 다녀올 지역의 역사와 문화, 문학작품을 소개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와 같은 책자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후 실제 답사과정에서 책자를 자체 발간하여 해당 지역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동기 부여를 일으키고자 하였다.

글쓰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휘 학습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서와의 병행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문장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멘티들은 기존의 문장 습관을 버리는 데 주력하였다. 이처럼 멘티들은 어휘와 문장 훈련을 통하여 자신만의 문장을 구사하게 되고, 다른 이들과 차별화된 문장을 통해 멘티들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멘토와 멘티들은 문학과 비문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글을 다루는 한편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언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매체를 중심으로 살펴 보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3단계는 실제 현장을 탐방하는 실전 적용 단계에 해당한다. 이때 멘토와 멘티들은 자연 탐사 및 지역문화 탐방 형태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 확장과 생생한 현장을 답사하는 경험을 한다. 이는 글쓰기 과정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기술적이고 평면적인 접근, 즉 텍스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써 사회 경험이 부족한 멘티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이때 멘토는 멘티들과 함께 탐방과정에서 지역의 문화와 문화제에 대해 교감을 나누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확장하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문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멘티들은 지역의 또 다른 멘토라 할 수 있는 작가들과의 대

담 등을 통하여 글쓰기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실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임실의 김용택 시인, 남원의 복효근 시인, 전주의 최기우 소설가 등을 만나 자유롭게 질의응답시간을 가짐으로써 글쓰기의 힘과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지역 문화와 문화재에 대해 시야를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 이경춘 가옥 문화해설사 대담	정읍 무성서원 문화해설사 대담	복효근 시인과의 대담
		
전주 한옥마을 서각 체험	전주 한옥마을 칠보 공예 체험	군산 경암철길마을 역거리 체험
		
김용택 시인과의 대담	최기우 소설가와의 대담	정읍 동학농민기념관 문화해설사 대담



<구간별 작가와의 대담과 체험형 프로그램>

4단계에서는 멘티들이 다른 참가자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멘토와 함께 실제 글쓰기로 확장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전체 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멘티들은 자신이 직전에 다녀왔던 장소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함께 자신의 소감과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 과정은 동일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학생 개개인이 느끼고 체험한 영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의 상호 교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멘토는 이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이 놓치거나 시야가 편중되는 것을 막고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의 방향 제시와 표현의 명료성 등에 대해 지도하였다.



<탐방 이후 멘티의 소감 발표와 피드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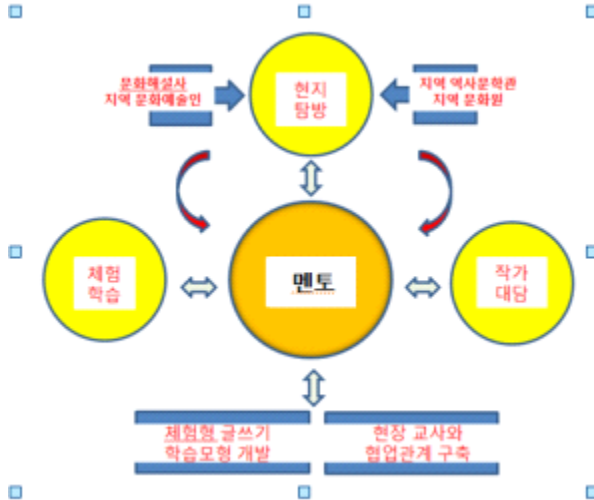
탐방을 다니면서 멘티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해 메모를 하는 한편 전체 집필내용을 구상하였다. 이때 멘티들은 체험이나 답사과정에서 진행자와 문화해설사, 그리고 현지에 사는 지역 문인에게 질의 응답시간을 가짐으로써 교실이나 텍스트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알고 있던 정보와 세계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하는 부분으로 텍스트 위주의 지식 암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간이다. 특히, 청소년의 시각에서 어른들 위주로 이루어지는 문화 프로그램과 문화재 접근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글쓰기의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이 과정은 현행 학교 교실수업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멘티 스스로가 온 몸으로 체감하고 터득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멘토와 멘티들은 그동안 작업했던 글에 대한 전체적인 퇴고와 최종 감수를 진행하였다. 멘티들은 처음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으며, 이는 몇 차례의 원고 마감을 연장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탐방에는 참가했으나 실제로 원고를 집필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도 일부 나타났다.¹⁴⁾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은 여전히 글쓰기가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후 현장 체험형 글쓰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최종 원고의 완성 후 집필자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1차 교정이 이루어졌고, 멘토의 2차, 3차, 4차 교정이 이어졌다. 이후 출판사를 선정하였고 최종 결과물을 편집과정에서 전체 디자인과 글꼴, 사진 편집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제목 수정과 함께 전체 원고 배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PDF파일로 전환한 이후 다시 1차, 2차, 3차 교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표지의 글꼴과 사진 선정 등에 대해 사전 논의하였

14) 김종성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책 만들기에 대해 교사는 “학생들의 내적 성장과 생활 태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학생 반응 역시 “내면적 성장과 진로 탐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성, 앞의 논문, pp.78.).

으며, 2018년 4월 11일 <전북문화탐방기>가 북랩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



<체험형 글쓰기 프로그램 협업 추진도>

실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학교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단위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착오와 혼란이 발생하였다. 또한, 한정된 시간과 예산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평일 대신에 주말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프로그램에 임하는 학생들의 솔직한 심경 고백은 책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소에 주말에는 PC방이나 당구장이나 노래방을 갔던 나는 주말마다 문학 관이나 문화재를 찾아가며 체험을 하는 역사기행이라는 프로젝트로 인해 놀 시간이 많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같이 체험을 하며 그 작품들을 보면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내가 뭔가를 알아가고 공감하는 게 난 참 좋게 생각 되었다.

- 학생 손**

주말에 PC방, 당구장, 노래방을 전전했다는 술회에서 나타나듯이 위의 학생이 처음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당시에는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도 “나는 그때 당시 ‘탐방을 할 바엔 게임 한 판을 더 하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신청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 초기에 이처럼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만 하는 이유, 즉 참여 동기의 불분명과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매력이 없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또 다른 이유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부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학교 교사가 주도했을 때와 달리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고, 모집을 주관하는 교사 역시 적극적인 참여 유도보다는 단순 홍보 차원에 그치고마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이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자발적인 참여와 달리 이탈자나 학생들의 호응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책 발간 이후 참가 학생들이 뚜렷하게 달라진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탐방 최종 결과물과 언론 보도>

학생후기 1

“내 생애 처음으로 이런 체험을 해봤고, 또 더 이상 이런 경험은 해보지 못할 것 같다. (중략) 역사기행을 막 처음 다녀왔을 때는 별 생각 없었지만 이렇게 책을 쓰며 내 기준으로써는 최선을 다한다니 책임감도 느껴지고 책을 쓰거나 자신도 뿌듯해진다.”

- 학생 손**

학생후기 2

“나는 원래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에도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여행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고 게임이나 인스포르츠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그러나 이번 역사 탐방을 통해 여행이라는 것에 흥미를 가지면서 삶의 가치관이 변했다. 이렇게 여행은 내가 보기에는 정신적 만병통치약같기도 하다.”

- 학생 이**

학생후기 3

“지금까지 역사기행을 다니며 좋은 추억이 너무 많아서 제가 대학생이 되거나 어른이 되면 이런 체험활동을 많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몇 년 후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 될 것 같아서 노력해보려고요.”

- 학생 유**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와 달리 최종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2)의 경우,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에도 참가하지 않던 자신의 변화에 놀라면서 여행을 ‘정신적 만병통치약’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학생 3)은 시점을 좀 더 확장하여 단순한 체험 참가자 차원을 넘어서 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는 이번 프로젝트가 참가자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학생

1)은 “역사기행을 막 처음 다녀왔을 때는 별 생각 없었”던 학생조차 자신이 책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끝난 이후에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 학생은 전주 티브로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탐방 이후 달라진 진로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학생 TV인터뷰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진로가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앞으로 우리의 문화와 문화콘텐츠를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 학생 유**

평소 책을 통해서 문화를 지식이나 정보 차원으로 접하던 것과 본인이 현장 체험과 답사를 병행하면서 달라진 스스로를 발견하는 일은 경이로운 체험이다. 이러한 학생의 변화는 처음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또한, 이 사실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문화에 대한 시야 확장과 함께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멘토 활용 글쓰기의 사회적 의의와 기대 효과

글쓰기에 열정을 갖고 있거나 충분한 능력을 보유한 학생을 발굴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교육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인재 발굴과 관리를 위해서는 초기 전략 설정과 향후 대응과정이 지

속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능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는 시스템만이 아니라 발굴한 이후에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부재하다고 할 정도로 취약한 편이다. 그러나 글쓰기는 그 특성상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글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글쓰기에 관심이 많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표가 될 수 있는 멘토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갖는다는 사실 자체가 글쓰기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의미를 지닌다. 멘토와의 교류가 창작 글쓰기 과정에서 강력한 동기 부여와 함께 이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에 멘토로서 학생과 멘토의 만남은 그들의 인생 방향 설정과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물론 이는 학생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정에 참가하는 멘토에게도 긍정적인 효과 유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학생 입장에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멘토와의 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1:1 방식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에 대해 상담을 청할 수도 있다. 특히 멘토는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지도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자신들이 평생 동안 축적한 글쓰기의 정수를 효율적으로 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오프라인 교육과정과는 차별화가 가능하다.

글쓰기 과정에서 멘토는 멘티인 학생에게 현재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의미 부여와 함께 꿈의 현실화를 촉진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멘토는 학생들이 인터넷 글쓰는 과정에서 습관화할 수 있는 잘못된 글쓰기를 지양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 학생들은 멘토와 함께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아울러 조망하면서 창작 글쓰기의 기초 훈련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정

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익힐 수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교육프로그램에서 멘토링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와의 교류는 학생의 관심영역을 다른 장르나 영역으로 확산이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여 다각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구술이나 독서 등을 통하여 상상력 확장과 창의성 발휘를 이루는 학습방법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상상력이 실제 현실 속에서 글쓰기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간섭과 장애 요인이 작용한다. 상상력이 쓰기 형태로 조직화하는 단계에서 각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글쓰기 프로그램에서 멘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글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최소화하며 문제 발생 시에 해결의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작업은 학생에게 사고의 확산과 연속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둘째, 학생은 멘토 및 다른 이와의 지속적인 공유를 이루어 정서적인 안정과 동질성 확보를 꾀할 수 있다. 현대인은 다른 이와의 소통을 연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미니홈피,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으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인 자기 의사 표현과 욕망 발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의 심화보다는 정보의 파편화, 단상의 나열, 무의미한 전개 등으로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상의 글쓰기는 개인의 필요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개인들 상호 간에 정서적인 교감 형성이 용이하며, 이를 다른 이들과의 소통관계를 넓히는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쓰기 교육프로그램과 인터넷의 가능성을 접목시킨다면 멘토를 포함한 다른 이와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접근성과 영역 확장성의 유용한 도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글쓰기 교육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 형성과

타인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정보 풀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인터넷의 특성상 창작 글쓰기 과정에서 균형 잡힌 세계관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은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은 멘토의 지도를 받아 자기 글의 완성도를 높여 인터넷상에 올림으로써 또 다른 자신만의 세계를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글쓰기의 영역을 현실계로까지 확대·연계할 경우 자아 존중감 확보와 긍정적인 세계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을 거쳐 인터넷과 오프라인과 연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듦으로써 이타정신의 발휘와 지식의 사회 환원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멘토와의 교류는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가시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산하고 자기 역량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나이, 학연, 지연 등에 대해 편견과 선입관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은 시공간과 국적을 불문하고 실력만으로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도전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불특정 다수의 검증과정을 거쳐 자신감과 생존전략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강한 창작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자아 성취감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현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의 통폐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선책으로 ‘지역거점형 통폐합학교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농어촌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은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의 업무 과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처음 기획부터 책 작업까지의 시간 문제, 현장 체험에 따른 경제적 문제, 프로그램 개발, 체험 프로그램 섭외, 학생 선발과 관리, 행정 처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체험형 프로그램을 교사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고 진행하기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형 글쓰기 프로그램을 학교별

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역 거점형태로 운영하면서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거점형 프로그램이 안정화한 이후 학교 부적응 상태에 놓여 있거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업 중단이나 기타 이유로 사회에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글쓰기가 외부와의 본격적인 소통을 위한 통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희, 「자기 탐색 글쓰기의 효과와 의의」, 『작문연구』 제10집, 한국작문학회, 2010.
- 김종성, 「자기주도적 탐구학습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0.
- 문신, 「청소년들의 자기표현 방법 교육 연구 -시 쓰기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61집, 국어문학회, 2016.
- 신나민, 안화실, 「읽기, 쓰기, 향유 체험을 중심으로 본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8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3.
- 신봉섭, 「신규교사 멘토링제의 운영 실제와 개선 방안」, 『한국교원교육연구』 23집, 2006.
- 오미선·권일남, 「멘토의 공감능력이 멘토링관계와 멘티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9권 7호, 2012.
- 오세영, 「청소년 필자의 학문적 쓰기 발달에 필요한 바람직한 국어교사의 쓰기 지도 방법 연구」, 『새국어교육』 101권, 2014.
- 오영훈,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글쓰기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2권 제5호, 2016.
- 장은섭, 「국어 교사의 쓰기경험과 쓰기수업 및 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 『대학작문』 7집, 대학작문학회, 2013.
- 손병관 외, 『전북문화탐방기』, 북랩, 2018.
- 조혜진·김옥주, 「멘토의 자격요건 및 멘토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원과 장학사의 인식 및 요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집,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1.
- 최선녀, 「청소년 자서전 창작 지도 방안 및 사례 분석」, 『한민족어문학』 제68집, 한민족어문학회, 2014.

【Abstracts】

The regional hub type creation writing plan of
education utilizing Mentor

- Focusing on practical case of experiential writing program

Jang changyoung

A mentor-based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 is a proposal to help students find potential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creative writing, and to develop their potential and perform effectively, focusing on local mentors.

Through this program, a new culture of school writing can be anticipated, as well as forming a mentoring relationship with a mentor who is a local resident and a youth mentee with interest and enthusiasm. This experimental method has the meaning of expanding the existing school writing method and applying it to the field. In addition, mentoring means that the mentor returns talent to the community, and the mentee communicates with external expert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improving writing skills and expanding visibility.

Mentor - centered field - based writing can expand the area of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world with the motivation of life for the youth in the blind spot of the school site. In addition to learners, local artists can als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to expand exchanges with local youth, thereby achieving the value of revitalizing local culture and expanding culture and arts.

Key words: Local professional writers, mentors, mentees, mentoring programs, creative writing, experiential writing programs

이 논문은 2018년 07월 03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07월 13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8년 07월 2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